

제3절 청동기시대

기원전 1천 년 경 중국 동북의 요령 지역으로부터 청동기 제작기술을 가진 새로운 농경 민 집단이 이주해 오면서 신석기인들을 흡수·동화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였다. 이들은 대규모 마을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며 침입자들과 짐승들을 막기 위해 환호(環濠)과 목책(木柵)을 주변에 설치하였다. 움집과 지상가옥으로 이루어진 주거공간에는 별도의 공동작업장과 창고, 가축우리, 광장 등을 만들었으며, 마을과 인접한 구릉과 하천 변에는 논과 밭을 조성하여 벼·보리·콩·조·수수 등을 재배하였다.

이 결과 발생한 잉여생산력은 계층분화를 촉진하여 계급과 사유재산제도가 발생하였고, 공동체간의 갈등은 전쟁으로 발전하였다. 계급의 발생에 따른 권력의 집중화는 수십 톤의 바위를 이용해 축조된 거대한 고인돌[支石墓]의 조성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인 무덤의 축조가 활발하여 한반도 일대에만 수만 개의 고인돌이 무리를 이루어 조성되었고, 석관묘(石棺墓)와 옹관묘(甕棺墓)도 유행하였다. 또한 공동체의 의식과 의례 행위도 발전되어, 태양신과 기하문, 별 등을 새겨 풍요로운 생산과 자손 번창을 기원하는 바위 그림[岩刻畫]이나 선돌[立石]이 조성되었다.

생활에 사용된 도구는 새로 등장한 청동으로 만든 비파형동검·청동꺾창·청동거울 등의 청동제품과 석재를 정밀 가공하여 만든 창·칼·화살촉·도끼·대팻날·반달돌칼·낫·괭이·가래·갈돌·갈판·숫돌·가락바퀴 등 마제석기(磨製石器)가 발달하였다. 한편 생활과 의례용기들은 납작한 굽을 붙인 무문토기(無文土器)와 흥도(紅陶), 흑도(黑陶) 등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청동기시대의 청동기는 의기적 성격이 강하며 실용구는 여전히 토기와 석기가 중심이었다. 고고학에서는 이러한 청동기시대 문화를 무문토기문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청동기시대는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를 주 무대로 기원전 15세기 무렵 시작되었다. 신석기시대에 쓰던 빗살무늬토기 대신 무문토기를 사용하였다. 청동기는 권위의 상징물이나 의기(儀器)로 일부 계층만 소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벼농사를 비롯해 농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낫은 언덕이나 평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으며, 고인돌, 돌널무덤, 독무덤 등 새로운 형태의 무덤이 나타났다. 이 시대에는 집단 안에 사회적 계층이 성립되었으며, 문헌에 등장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대국가인 고조선이 한(漢)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세력과 공존하며 패권을 다투기도 했다.

경북·대구 지역의 청동기 문화는 동해안 지역의 소하천과 구릉, 남부 내륙 지역의 낙동강, 금호강, 형산강 등을 비롯한 강과 하천의 지류 주변의 충적지와 선상지, 나지막한 구릉 일대에서 밀집되어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시기적으로도 조기에서 후기까지의 대규모 취락과 분묘가 고루 분포하며, 지역별로 독창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울진 지역의 청동기 문화는 영동 지역에서 시작하여 형산강 일대까지 번성하던 동해안 문화권에 편입시킬 수 있다. 주로 소규모 취락과 분묘, 유물산포지의 형태로 동해안과 가까운 하천변이나 구릉에서 확인되나 많은 수량은 아니다. 취락은 봉산리 494-1유적, 죽변리유적, 후정리 877유적, 덕천리 372유적 등에서 주거지 몇 동으로 구성된 소규모 취락이 확인되었다. 분묘는 지석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부구리 254유적에서 조사된 석관묘와 토광묘가 있다. 조성 시기는 대부분 청동기시대 전기 유적이며, 후기 유적도 일부 확인된다.

울진 지역의 청동기문화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이는 발굴조사된 사례가 많이 부족하다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동해안 문화권의 다른 지역들과 같이 동해안으로 흘러드는 왕피천, 척산천, 나곡천, 부구천, 남대천 등의 주변 구릉과 곡간평야, 동해안의 사구 일대를 배경으로 광범위하게 청동기문화가 발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4절 초기철기시대

우리나라에서는 철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기원전 300년경부터 삼국이 정립된 기원후 300년경까지를 크게 철기시대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시대 구분의 용어상에 다소 논란이 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 시기를 삼한시대(三韓時代)로 부르다가 최근에는 한반도 남부지역에 한정된다는 지역적 한계점으로 인해 부여·삼한시대로 개칭하였다. 고고학계에서는 기원전 100년경을 기준으로 초기철기시대(初期鐵器時代)와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로 구분하기도 하며, 초기철기시대의 특징적인 점토대토기 중에서 원형점토대토기 단계를 청동기시대 후기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초기철기시대를 하나의 시대로 설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원삼국시대의 경우에는 역사학계에서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본 장에서는 고고학계의 입장에서 선사시대에 포함하여 초기철기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초기철기시대는 기원전 300년경부터 기원전 100년경을 전후한 시기로 중국 연[燕, BC 323~223]의 화폐인 명도전(明刀錢)과 함께 철제무기와 농공구 등이 서북한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남부 지역에서는 기원전 100년경 고조선과 낙랑의 철기문화를 가진 유이민 집단이 들어오면서 완전하게 정착된다. 철기의 보급은 생활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고 계층문화가 가속화되며, 전쟁의 형태도 대규모화되는 등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 시기의 유적으로는 집터와 무덤이 많이 확인되는데, 집터는 전통적인 움집과 지상가옥 안에 부분적으로 온돌시설이 채용되고 내부공간도 확대되어 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무덤은 청동기시대의 지석묘와 석관묘가 점차 줄어드는 대신, 중국의 영향과 전통적 무덤 양